

문화축제로 거듭난 통도사 개산대제

10월 2일 개산 1396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개산 1396주년을 기념해 영축문화축제를 10월 2일 봉행했다. 영축문화축제는 개산대제를 맞아 창건 대종사인 자장율사를 기리고 통도사의 창건과 앞날의 도약을 발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연례행사다. 해마다 많은 신도들과 양산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전통 맥을 계승한 역대 대덕스님들을 기리기 위해 부도전에 헌다를 올리는 '부도헌다례'로 개산대제의 막을 열었다.

주지 원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은 불지종가 국지대찰인 통도사의 창건을 기리는 날이다. 자장대사의 계승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는 통도사에는 강원, 울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각각 맹렬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 앞으로도 자장대사의 투철한 지계정신을 지키고 역대 큰스님들의 청백가풍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5세~13세 어린이 수계식도 가사 친견 1년에 한번 공개

고영립 통도사 신도회장은 "영축문화축제는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모두가 불법홍포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여법한 축제이다. 이번 개산대제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으로 좀 더 친근하게 스며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10월 1일~5일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부스들이 준비된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통도사는 작년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96주년을 기념한 영축문화축제를 10월 2일 개최했다.

을 위한 반발공양 및 위로공연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의 포교에 진력했으나 올해부터는 5세~13세를 위한 어린이 수계식과 청소년댄스경연대회, 다문과 공연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사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줬다. 이는 주지 원산 스님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유년기에 불교의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훗날에 신심 있는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양성되길 바라는 서원에서 추진됐다.

이전 견할 수 있도록 했다. 통도사의 가사 친견은 1년에 한번 개산대제 축제 동안만 공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연등 만들기, 차 명상 등 다양한 체험코너를 둘러본 이은주(48) 신도는 "개산대제를 맞아 영축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역시 불지종가 통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번 어린이 수계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포교 활동에 진력할 방침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소외된 이웃 생각하는 차담 '훈훈'

영도구불교연합회 및 신도회 하루차담 한마음선원서 열어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와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김희운)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일일차담을 9월 2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열었다.

"관음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운영된 이번 하루차담은 한마음선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9시 30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영도구신도회가 발족되고 처음 갖는 행사로 승가와 재가가 함께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영도구불교연합회와 신도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회향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기쁘다. 오늘의 하루차담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와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가 소외 이웃을 위한 일일차담을 9월 2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열었다.

자리이자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김희운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무료급식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불자님들과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 미륵사 회주 정각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영도구연합회와 신도회의 자비행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수익금은 영도구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금정중에 교육발전기금 6천만 원 쾌척

금정학원 신임 이사 발전기금 전달

불교계 설립 학교법인 부산 금정학원(이사장 흥선)의 신임 이사 화랑 스님(동명불일 주지)과 탄준 스님(법해사 주지)이 금정중학교의 참된 교육을 위해 발전기금 총 6천만 원을 9월 2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사장 흥선 스님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육하는 것이다. 이사로 활동하다 보니 학교들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금정학원 신임 이사 스님들이 큰마음을 내서 기쁘다"고 전했다.

탄준 스님은 정진완 금정중학교

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며 "교육에 항상 뜻이 있었다. 앞으로도 큰 스님들의 뜻을 잘 따라서 청소년 교육 및 포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랑 스님은 전달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탄준 스님에 앞서 천만 원을 기부해 금정중학교 주차장 확장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금정중학교장은 탄준 스님과 화랑 스님을 대신한 이사 정현 스님에게 감사패를, 이사장 흥선 스님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금정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해외 인적



부산 금정학원(이사장 흥선) 신임 이사 화랑 스님과 탄준 스님이 발전기금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

교류,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등 금정학원 이사들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대법회

지상 2층 규모의 다용도 시설 갖춰



은해사가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원대법회를 9월 27일 열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가 창건 1205주년 개산대제, 템플스테이 수련관(관광문화센터)개원대법회를 9월 27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중앙총회회장 항적 스님,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 등이 참

석했으며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은해사 부도전, 조사전에서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 차례 등을 거쳐 개관식을 가졌다. 관장 돈관 스님은 "은해사 템플스

테이 수련관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계 여러 단체 및 신행단체를 비롯해 공무원,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의 단체 힐링 캠프 및 연수회를 적극 유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 개관으로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뜻 깊은 공간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관광문화센터(템플스테이 수련관)는 연면적 654.54평에 2층 한옥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소강의실, 작은방 8개, 큰방 2개와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설법전, 원장실, 강사실,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환희불교복지대학 개강

9월 26일 환희노인요양원서

불교 호스피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늘기쁨마을(이사장 지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32기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9월 26일 환희노인요양원에서 개강식 및 특별강연회를 마련한 환희불교복지대학은 발원문 낭독, 인사말, 합창단 공연 등의 순서로 43명의 제32기 수강생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학장 지현 스님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이자 지장보살"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제32기 신입생들은 9월 30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호스피스 실무 및 불교 교리 등 전문적인 불교 호스피스 수업을 2개월 동안 수강하게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지 스님 대구불교사원주지聯 12대 회장 취임

9월 26일 대구 인터블고호텔서 이취임식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9월 26일 인터블고호텔 별관에서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제12대 회장 겸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제9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이재근 신도회장,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등 지역기관, 단체인 등 사부대중 300

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선지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로 대덕스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이취임식에 앞서 쌀4천400kg을



선지 스님 회장 이취임식 장면

지역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15여 곳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병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임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